



추석 25만명 다녀간 제주, 관찰을까...

도, 이동 여파 '예의주시'... 어제 8명 추가 확진 추석 연휴 코로나 감염자 10명 중 3명 '외부요인'

추석 연휴 기간 25만명 이상의 입도객이 제주를 찾으면서 방역당국이 도민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방역당국은 수도권 뿐 아니라 제주를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토대로, 다음 주까지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에 따른 도내 감염 전파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지난 18~22일) 동안 1만369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으며 이중 3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약 30%가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37명 중 ▷6명(43.3%)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11명(29.7%)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 외부요인 ▷2명(5.4%)은 해외입국자 ▷8명(21.6%)은 유증상자다.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도 평균 검사 수 대비 7배 증가했다. 앞서 도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7일부터 23일까지 입도객 중 희망자에 한해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7~22일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입도객 등 6588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다. 이들 중 해외입국자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검사자를 구분하면 ▷도민 6243명 ▷재외도민 151명 ▷외국인 120명 ▷발열 감지자 44명 등이다.

특히 추석 당일인 21일 2392건(도민 2365·외국인 24·발열감지자 3) 및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2462건(도민 2419·외국인 36·발열감지자 7)의 검사가 진행됐다. 이는 연휴 이전 일 평균 검사 수(300~400건)의 약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제주도는 추석 연휴 종료 후 등교·출근 시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학교·직장 등이 많음에 따라 검사량

이 많아진 것으로 예상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비수도권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도내 주변에 무증상자를 포함한 감염 에너지가 증만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음 주초까지 많은 인파가 다녀간 후 후유증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선 23일 오후 5시까지 8명(2804~2811번)이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4명,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2명, 코로나19 유증상자 2명 등이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811명으로 늘었다. 최근 일주일 사이 48명이 확진됐다. 주 평균 1일 확진자는 6.86명이다. 강대해기자

헬기 뜨니 운전자들 '조심 조심'

추석 연휴 교통사고 33건... 전년보다 53%↓

경찰 "앞으로 헬기-순찰차 입체적 사고예방활동 계획"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기간(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총 3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44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에 발생한 70건보다 52.9%(37건) 감소한 것이다. 사고가 줄어드니 부상자도 전년(136명)에 비해 67.6%(92명) 낮아졌다.

같은 기간 실시된 주·야간 및 새벽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는 총

23명(면허취소 10명·정지 13명)이 적발됐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음주운전과 이륜차 무질서 행위 등 주요 사고 요인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한정된 경찰 인력과 장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옥상에서는 순찰차, 공중에서는 경찰헬기를 띄워 입체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주요 혼잡 예상지역 및 교통사고 취약장소를 위주로 인력과 장비를 배치·운영했다.

특히 경찰헬기 1대를 띄워 주요도로 정찰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경고 방송을 실시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남방큰돌고래가 바로 코앞에... 23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 갯바위에서 관광객들이 남방큰돌고래가 유영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여고 교실 천장형 에어컨 화재 소동

제주의 한 여고 교실에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생들이 바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3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9분쯤 한 여자고등학교 2학년 교실 내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학교측은 2학년 학생 약 330여명을 바깥으로 대피시키고,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했다.



이 화재로 천장형 에어컨 실내기 3대 과 옥상 에어컨 실내기 1대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화재로 2학년 학생들은 전부 귀가조치됐다. 강민성기자

■ 제주 어제부터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

“손님 발길 기대” vs “1시간 더? 의미없어”

“이제나 저제나 영업 제한이 풀릴길 기다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환기와 청소를 했어요. 오늘(23일)부터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솔직히 기대와 우려가 반반입니다. 언제 또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질지 모르잖아요.”

제주시 노형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53·여)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 달 18일부터 가게 문을 닫았다가 한 달 하고도 일주일 만인 23일 다시 문을 열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

기 단계가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돼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영업 제한 업종에 해당돼 재난지원금도 받았지만 임대료로 쓰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오랜만에 문을 연 만큼 방역수칙 준수 등 안전하게 가게를 운영하겠다. 부디 문 닫는 걱정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 1356곳

(유흥주점 776곳·단란주점 579곳·클럽 1곳)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님 집중되는 시간대(오후 10시 이후)에는 여전히 영업을 제한된 상황이고, 장기간 문을 닫으면서 종업원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에서 단란주점을 하고 있는 B(56)씨는 “(가게 문을 열 수도 있지만) 심야 영업을 가능할 때까지는 문을 닫을 생각”이라며 “접객원

등 종업원들도 집합금지 명령 이후 뿔뿔이 흩어졌다. 돌아오라고 할 수 있지만 손님 발길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제주에서 불법 유흥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그들을 옹호할 뜻은 없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23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그동안 영업을 제한된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홀덤펍, 콜라텍 등도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또 심야영업이 금지된 실내 체육시설과 영화관, 공연장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가능하다.

송은범기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60대에 징역 2년 선고

19억원이 넘는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60대에 징역 2년 선고를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B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12월 B업체가 아스팔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업체에 공급가액 19억1300여만원 상당의 아스팔트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장 등을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가능하다.

송은범기자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 경찰 30대 女 입건 조사중

만취 상태로 차를 운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20분쯤 제주시 해안동 해안교차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차량이 지나치게 낮은 속도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아 현장으로 출동, A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무료 내선전기실무 및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

대상	실업자/구직자/매월 1억5천만 미만 사업자 재직자
교육기간	11월 개강 예정 (7개월 과정)
교육시간	09:00 ~ 16:00, 1일 6시간 (주 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배관, 배선, 약전, 소방 등
문의	064-749-3434

★ 매월 최대 30만원 훈련 수당 지급 ★

전액무료 (80% 취업률 달성)
★ 전과정 기능사 실기 합격률 95% 달성 ★

ITO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 취득 및 문서작성 실무

대상	재직자, 구직자(취업 목적)
교육기간	2021. 11. 17. ~ 2022. 10. 20
교육시간	월-금 (주 5회) 저녁 7시 ~ 10시
교육내용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3가지 전부 수강)
문의	064-749-3434

★ 자부담 276,970원 있음

주식회사 제원직업전문학교
jejuwon.com(신제주 은남동 버스정류소 앞)
T. 064-749-3434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누수탐지: 가스식 정진기식 수도매관 누출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한가위맞이 사은대행사!!
선착순, 20만원 상당 녹음증정

9월 한달간 배터리 ₩20,000 → ₩9,000 할인행사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년 IFTTBA 히트브랜드 대상 2위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충을 초저 전화 주셔서! 기대해주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 Q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경구역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청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심의번호 2018-GN1-11-0011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CGV 광양사거리

☎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